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대학원 입시 및 로테이션 제도 FAQ

Q1. 학부생 인턴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학원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 대학원 입시 제출 서류에서 학부생 인턴 경험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학부 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경험이 다른 사항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더불어 서류 합격자에 한해 치루어지는 구두 시험은 발표 시험으로 치루어지는데, 이는 (1) 인턴 때 수행했던 연구 내용 발표 또는 (2) 관심이 있는 논문 내용 발표로 진행됩니다. 학부생 인턴 경험이 있는 것이 구두 시험을 용이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학부생 연구 인턴 경험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Q2.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실에서의 사전 연구 인턴 경험이 대학원 입시에 필수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현 대학원 입시는 철저하게 서류 평가 및 구두 평가로 이루어지며 연구 인턴 경험 자체는 종합적인 평가에서 유리함을 제공하나,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실에서의 사전 연구 인턴 경험이 다르게 평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테이션 선정 연구실 탐색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실에서의 사전 연구 인턴을 권장합니다.

Q3. 합격 후 대학원 연구실 로테이션을 위한 연구실 탐색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 연구실 로테이션을 위한 연구실 탐색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1) 학부 웹페이지 (<https://biosci.snu.ac.kr/people/faculty>)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실 웹페이지를 통한 기본 정보 획득; (2) 학부생 연구실습 (서울대 생명과학부 소속 학부생 대상) 또는 자연대 학부 연구인턴십(선정 과정을 통한 전국의 모든 학부생 대상)을 통한 개별 연구실 사전 경험; (3) 교수 개별 면담 (대학원 합격 전/후 모두 가능) 및 (4) 합격자 대상 오픈랩 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오픈랩 행사의 경우, 합격자가 관심 있는 연구실(대학원 입학 TO가 있는 연구실 한정)을 다수 방문하고 교수 및 연구실 구성원과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로테이션 선정을 위한 연구실 탐색이 가능합니다.

Q4. 대학원 연구실 로테이션은 어떻게 매칭되나요?

: 로테이션에 참여하는 신입생들은 연구실 탐색 후 로테이션을 희망하는 연구실(대학원 입학 TO가 있는 연구실 한정)과 연구분야를 각각 총 3개 선택하여 대학원 입학사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대학원 입학사정위원회는 대학원생 입학 TO가 있는 연구실과의 논의를 통해, 각 신입생이 로테이션을 수행할 총 3개의 연구실을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연구실 지도교수 등의 요청에 따라 로테이션 참여 연구실을 2개로 선택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1개 연구실에서 4주간(2회) 진행) 만약 신입생이 희망하였던 연구실 중 일부가 사정상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연구분야를 참고로 하여 입학사정위원회가 적합한 연구실을 추가로 배정하게 됩니다.

Q5. 연구실 로테이션 수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연구실 로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신입생에게 최적의 연구실 및 지도교수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더불어 학위 과정 중 학부 안에서 공동 연구를 수월하게 추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연구실 로테이션은 각 연구실 당 2주를 진행하며 (총 3회), 연구실 별로 마련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식입니다. 연구실 로테이션 프로그램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주로 (1)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입학 시 가능한 프로젝트

논의; (2) 해당 연구실에서 주로 활용하는 연구 기법 소개 및 경험; 그리고 (3) 연구실 구성원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구실 로테이션 수행 실적은 대학원 입학 시험 성적과 함께 최종 연구실 선정에 있어서 최우선 지표로 활용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각 로테이션 연구실 별로 상이합니다).

Q6. 연구실 로테이션을 수행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학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연구실 로테이션을 수행하는 신입생은 상황에 따라 소정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됩니다.

Q7. 연구실 로테이션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나요?

: 연구실 로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신입생에게 최적의 연구실 및 지도교수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더불어 학위 과정 중 학부 안에서 공동 연구를 수월하게 추구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생명과학부는 연구실 로테이션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Q8. 학위 지도교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마지막 연구실 로테이션 종료 후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신입생과 신입생이 학위 논문을 지도받기 원하는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결정 과정은 연구실 별로 상이하나 (1) 대학원 지원 서류, (2) 대학원 입학 성적, 그리고 (3) 로테이션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연구실에서의 로테이션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로테이션 연구실에서의 실적 또한 교수가 요청하고 최종 결정에 고려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9. 만일 총3회의 로테이션 후 학위 지도교수 선정이 불발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총 3회의 로테이션 종료 후 주어진 기간 동안 학위 지도교수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시로 학부에 소속이 됩니다 (임시 지도교수: 생명과학부 학부장님). 이후 학부장님과 부학부장님들로 구성된 학부장단이 해당 신입생과 학부 교수님들 간의 폭넓은 논의기회를 만들어 학위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필요할 경우 한 학기에 한하여 추가 로테이션(4번째/5번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신입생이 본인에게 맞는 지도교수 및 연구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